

## C-13. 골 이식재와 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한 골 결손부 치료에 대한 임상적, 방사선학적 평가

서미란, 석화숙

서울 위생 치과 병원 치주과

### 연구배경

치은염이 진행되어 치주염으로 발전됨에 따라 병적인 치주낭이 발생하며 부착소실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른 염증, 면역 반응의 결과 이차적으로 골 소실이 발생하게 된다. 즉, 골 소실은 치주염 진행에 따른 2차적 효과이므로, 골 처치가 아닌 부착획득을 치주 치료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직 유도 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tion: GTR)의 원리에 기초하여 골 결손 부위를 치료한 결과 new connective tissue attachment가 예측 가능하게 형성됨을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증명한 여러 연구들이 있다(Jan Gottlow, Jan Lindhe et, *JCP*, 1986). 조직 유도 재생술은 상피 세포를 차단하고 선택적 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차폐막의 기능을 이용하여, 접합 상피의 빠른 근단 증식을 차단하고 인접 치주 인대로부터 유래되는 섬유아세포 및 다른 전구 세포를 치근면에서 선택적으로 증식시켜 신부착을 증진시키는 술식이다.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한 조직 유도 재생술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이나, 차폐막이 노출되거나 이차 수술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최근엔 여러 문헌들에서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해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Laurell et, *JP*, 1994/ Hugoson et, *JP*, 1995).

이에 본 증례 보고에서는 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한 조직 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으며, 흡수성 차폐막의 적용 시 공간 형성을 확실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골재생의 예견성을 높이기 위해 골이식재의 사용을 동반하였다.

### 연구방법 및 재료

깊은 치주낭을 보이는 골 결손 부위에 흡수성 차폐막(BioMend)과 골 이식재(BBP®: Bovine Bone Powder)을 이용한 조직 유도 재생술을 시행한 증례로, 그 결과를 부착 수준과 표준 구내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비교함으로써 평가하였다.

### 연구결과

치료 전과 술 후 6~12개월에서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를 비교 평가한 결과, 뚜렷한 부착획득과 방사선학적 골 개선 및 임상적인 기능 개선 등의 양호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 결론

꿀 이식재를 동반한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한 조직 유도 재생술은 부착획득과 방사선학적 골 개선 및 임상적인 기능 개선 등을 보이는 효과적인 술식으로 사료된다.